

### 일본 NEC전기, 3G 휴대폰용 전력 절감 칩 개발

NEC전기는 3G 휴대폰의 전력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집적회로(LSI) 칩을 개발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M2라고 명명된 이 칩은 음성 및 데이터 송신과 모바일 TV 방송 수신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도체 내부의 사용전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특징이 있다.

이 칩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총 5종의 기술이 적용됐다. 과전압은 특수 회로로 연결돼 트랜지스터 내부 전류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전력관리 소프트웨어는 주파수를 변경시켜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막아준다. 또한 65나노 회로 선폭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90나노 공정에 비해 전력 소비량을 줄였다.

NEC전기는 곧 이 칩의 샘플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양산은 오는 10월로 예정하고 있다. 또 내년 말까지는 월 생산량을 100만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 유럽연합, 차세대 DVD 방식 반독점 조사 확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월 3일 DVD 세계 표준화를 놓고 경쟁해온 양대 진영이 시장성을 체크하면서 최대 고객인

할리우드 영화사들로부터 정보를 확보한 것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비공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들 영화사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DVD 방식을 결정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오는 6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공식적인 반독점 관련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자료 요청이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려는 작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업계는 고해상도(HD) 차세대 DVD 방식과 관련해 도시바가 주도하는 HD-DVD 방식과 소니 주도 하에 필립스·삼성전자 및 샤프가 개발한 블루레이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뤄져왔다.

### 대만 반도체업체들, 낸드플래시메모리 시장 진출

대만의 주요 반도체업체들이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 진입을 계획 중이어서 선두 주자인 삼성전자, 도시바 등과 치열한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파워칩반도체와 프로모스테크놀로지사는 오는 2009년부터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하기 위해 올 연말쯤에 시험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낸드플래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파워칩은 최근 일본의 르네사스테크놀로지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

파워칩과 프로모스는 D램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제2의 핵심사업으로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시장진입이 이뤄지면 한국과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격전이 예고된다. 삼성전자와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 야후 '맞춤형 광고' 공개

인터넷 디스플레이 광고 분야에서 경쟁자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야후가 '맞춤형 광고'라는 신무기를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디스플레이 광고 분야 1위 업체인 야후가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 '스마트애즈(SmartAds)'를 선보였다고 7월 2일 보도했다.

스마트애즈는 특정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야후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부합하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내보낸다. 뉴욕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야후에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을 검색하고, 곧 이어 야후 스포츠에 들어가면 스마트애즈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휴가에 대한 디스플레이 광고를 해당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띄워주는 식이다.

야후의 토드 테레시 디스플레이 광고 담당 책임자는 “스마트애즈를 통해 광고주는 네티즌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후는 우선 스마트애즈를 여행 광고에 적용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이용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 도시바, 노트북에 AMD CPU 장착

도시바가 6년간에 걸친 인텔과의 독점 사용관계를 청산하고 AMD의 CPU를 장착한 노트북 PC를 생산한다.

노트북 PC 업계 4위인 도시바가 미국과 유럽지역에 판매할 일부 노트북 PC에 AMD CPU를 내장할 방침이라고 지난 5월 29일 보도했다.

제품 판매는 올 여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도시바의 후루타 준코 대변인은 “AMD 칩을 탑재함으로써 제품 라인업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보급형 노트북 PC에 AMD 칩이 탑재되며 고급형 노트북에는 인텔 제품이 사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모델에 AMD칩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도시바 노트북 PC 사업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가량이다.

미즈호 투자증권의 이시다 유이치 애널리스트는 "AMD CPU를 사용함으로써 칩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오는 연말 대목에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면 컴퓨터 사업의 수익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인텔, 영국 칩 업체에 1000만달러 투자



인텔이 영국의 칩 개발 업체인 '미릭스 세미콘덕터'에 1000만달러를 투자했다고 7월 4일 보도했다.

미릭스는 전자태그(RFID)와 휴대폰 및 노트북용 모바일 칩 등을 개발하는 전문 업체다.

인텔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미릭스에 경영관리와 기술 자문은 물론, 각종 투자 유치도 주선해준다는 계획이다.

사이몬 오틀킨슨 미릭스 CEO는 "모바일 브로드캐스트 분야의 기술 개발에 이번 투자 금액을 사용할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에 필요한 제품 생

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텔은 최근 중국내 칩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베트남에 칩 테스트 공장을 증설하는 데 3억달러를 쏟아붓는 등 아시아 지역내 생산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 노키아지멘스, 인도에 3년간 1억달러 투자



노키아와 지멘스가 합작한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지멘스네트워크가 인도에 3년간 1억달러(7380만유로)를 투자, 공격경영에 나선다.

7월 3일 노키아지멘스가 인도 남부 타밀 나두에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주요 도시에 지사를 개설하는 등 향후 3년에 걸쳐 총 1억달러를 인도에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노키아지멘스는 또 벵갈루루에 있는 R&D 센터도 기능을 더욱 보강할 방침이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인도 통신시장에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고 AP통신은 덧붙였다.

노키아지멘스의 시몬 베레스포 드와일리 사장은 "인도 통신시장은 이동통신과 광대역망 서비스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확대되며 새로운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현지 수요에 부응하고 제품 및 서비스 출시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인도 내 입지를 강화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소니, CMOS 사업 강화



소니가 휴대폰·디지털 일안 반사식(DSLR) 카메라에 주로 쓰이는 이미지센서인 상보성금속산화물반도체(CMOS)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7월 4일 보도했다.

소니는 CMOS 센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향후 3년간 600억엔을 투입기로 한 가운데 올 가을 해상도를 높인 CMOS 센서를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 봄 5.15메가픽셀 CMOS센서(모델명 MX020)를 선보인 소니는 센서 크기는 동일하지만 픽셀 공간을 기존 2마이크론에서 1.7마이크론으로 줄여, 해상도를 개선한 신제품을 연이어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체촬상소자(CCD) 사업에 집중하던 소니가 경쟁 제품인 CMOS 사업에 힘을 쏟는 것은 CMOS 시장이 CCD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미국 이머전, 노키아에 촉각 감응 기술 제공



미국 이머전이 자사의 바이브톤즈(VibeTonz) 촉각 감응 시스템을 노키아에 제공한다고 7월 3일 발표했다.

세계 1위의 휴대폰업체 노키아가 이머전 바이브톤즈 기술의 사용권을 확보함에 따라 휴대폰에서 촉각기술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채택한 바이브톤즈 시스템은 터치스크린을 내장한 휴대폰 환경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촉감을 느끼게 한다. 촉각 감응이 구현된 휴대폰은 통화 끊김, 전화 울림, 통화 중 등을 손 끝에서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사용이 용이해진다.